

제 189 호

연중 제 14 주일

복자 김신부 외부행사

1976. 7 4

# 숲 정 이

발행인	김 종 택
인쇄인	범 석 규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35098)

### ● 감 론 ●

## 우리 한국 교회에

### 은총을 내려 주소서

김 병 열 신부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났다.”

“나의 최후의 시각이 당도 하였으니 여러분은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내가 외국 사람과 교제한 것은 오직 우리 천주교를 위함이였으며 이제 죽는 것도 천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니 바야흐로 나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이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죽은후에 영복을 얻으려거든 천주교를 믿으시오. 천주께서는 당신을 알아 공경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영원한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주여, 당신의 권능은 강한 자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시고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 없고 비천한 자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계시니.

당시의 우리 조선 천주교회를 돌아볼 때 얼마나 미약하고 보잘것 없었습니까? 미약한 개천에서 세 피마동이를 선택하고 개나리꽃을 등에 얹고 험난하고 멀고 먼 중국 대륙을 발년여를 걷게 한 것은 굳은 의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모르고 죄 없는 당신의 양을 죽인 이들의 잘못을 보속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조선 천주교회의 굳고 굳은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입니까?

아편 전쟁에서 피난의 뱃길, 조선 천주교회에 전교신부를 입국시키기 위한 만주들판의 혹한, 변문의 고생, 풍파중의 황폐의 고난을 받게 하였습니까?

영원한 사제이며 유일한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사제 서품을 받았던 김대전은 얼마나 가슴이 부풀어 올랐겠습니까? 대전-당신의 배후에는 소년 다위가 돌팔매로 웅장 끌리았을 쉼이 없게 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조선 팔도에 십자가를 가는 곳마다 세울거라는 즐거운 희망이 청년 사제에게 깃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둔하고 멍청한 우리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절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사제 서품을 받으신지 얼마 되지 않아 포퓰에게 포박케 하여 재판관 받게 하고 한강 새남터에서 최후의 장렬한 처명을 하게 한 것 말입니다. 좀더 오래 계시면서 당신의 말씀을 만방에 전하게 하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진지하시고 사랑하오신 주여! 당신은 사도 바오로를 통하여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라고 하신 말씀은 참으로 심오한 말씀이시옵니다.

우리의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이 깊은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소서...우리 하나 하나가 당신의 교회라는 것도 알게 하여 주소서, 당신이 개인에게 주신 팔레트도 충분히 활용케 하여 주님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 대건신부의 피가 우리 한국 교회의 거름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에 주님의 풍부한 은총을 내려 주소서 아멘.  
-남원 천주교회-

### ✧ 이 주일의 미사 해설 ✧

#### ✧ 연중 제 14주일 ✧ (기도서 p. 385)

하느님은 예언자들을 시켜 인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성서에 나오는 예제키엘과 사도 바오로, 그리고 대 예언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 하느님께 보냄 받은 인물들입니다.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느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생체는 예언자들의 음식입니다. 이 음식을 들고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 주변에 전합니다.

#### □제1독서 (예제키엘 2장2-5)

하느님은 당신과 맺은 계약을 저버린 이스라엘에 예제키엘을 보내십니다. 그의 말은 든든, 이스라엘은 자기배 가운데 하느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합니다.

#### □제2독서 (고린도 후 12장 7-10절 p.422)

사도 바오로는 예언자가 걸어야 할 숙명의 길, 골짜기 아릴 수 없는 박해와 약점을 지니고 살았으며, 오히려 그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약한 자 안에서 주님의 권능이 완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 □복음 (마르코 6장1-6절 p.87)

“예언자도 고향에서만은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나자렛 사람들은 자기 마을에서 태어난 예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를 배척했듯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하느님의 예언자는 고독합니다.

#### □영성체 후 묵상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세계에서, 약자들의 비명과 가난한 이들의 신음이 하늘을 향해 소리치르는 세계에서 예언자들은 고독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등진 이들은 하느님의 사람도 배척합니다. 조용하고 잡아 가두고 죄를 씌워서 살해합니다. 아벨에서 시작하여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은 즈카르야에 이르기까지, 스테파노에서 시작하여 감옥과 고문실에서 살해당하는 오늘의 예언자들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렸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와 국가를 하느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는 까닭은 그 의로운 피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 숲 정 이 산책







# 3.1 사건 공판 방청기 (6)

김 영 신 신부

이 땅위에 소위 3·1사건이 일어난지 4개월이나 된다 종교예식을 빙자하여 정부전복, 민중봉기를 획책했다는 사건이다. 하루에 몇번이고 T.V, 라디오, 신문을 통하여 방송 방영 되어 전 국민을 놀라게 하므로 그 사건은 종교계에 크나큰 파문이 아닐 수 없었다. 이렇게 종교인 뿐 아니라 전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될 만한 사건으로 매스컴을 통하여 선전을 가했다.

반면에 가톨릭시보에도 낼 수 없었던 주교단의 성명서는 「3·1 명동 기도회 사건은 신앙인의 자세에서 행한 것이지 결코 정부 전복 획책은 아니다」고 밝힌바 있다.

이렇게 됨으로 이 사회에 특히 종교계에 혼란을 거듭 하게 했다. 이러한 혼란을 가져온 사건인 만큼 공정하고 분명히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그런데 진실을 진실로 드러내지 못하고 일방적인 해석으로 국민에게 사실을 왜곡하게 하거나 왜곡시킨 사실부터 민주사회에서 큰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7회 공판 방청기를 요약하고자 한다.

세칭 명동 3·1 사건의 동기인 「민주구국 선언과 원주 기도회때 강론과 성명서 내용, 전주 기도회때의 김지하 어머니 호소문과 성명서 낭독」이 공소사실로 되어 매주 토요일 재판장을 받고 있다. 오늘 26일도 오전 10시 10분 부터 오후 5시까지 재판이 있었다. 이것만도 국력의 큰 소모가 아닐 수 없다.

박세경 변호사는 문익환 목사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작성동기로부터 공소 사실을 하나 하나 지적하며 사실 여부를 물었다. 작성자의 동기는 다음과 같다.

제목과 같이 순수한 민주 구국 선언문으로 독재하의 민주주의 실현, 정의 구현의 필요성을 밝혔다. 경제입국 면에서 본 무역적자 및 차관의 문제성과 남북한 대치상 태에서 무력증강보다 남북통일의 필요성을 가진 우리나라 민족 수난사를 항상 종교인 입장에서 생각했다.

3·1정신을 남겨준 애국지사들과 4·19의 젊은이들의 아우성, 그리고 고 장준하 선배의 소리도 외면할 수 없었다.

현 정부에서도 북한의 무력 도발은 자살행위라고 말했다 듯이 무력보다 평화적 통일을 원했던 것이다. 이 평화적 통일은 독재적 타협이 아니라 민주 원칙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는 「용기와 절고함」만이 민주사회를 이룰 수 있다. 이 민주역량을 기르는 것은 북한(평양) 정권에 기대할 수 없고, 민주역량은 정부의 생명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데 30년전과 같이 독재로 돌아 갔으니 오로지 독재를 막는 길 밖에 없다. 또한 통

일은 어느 한 사람의 지시와 복종으로 되지 않고 「전 국민의 슬기」로 이뤄야 하는데, 이 슬기가 복종되어 국민의 슬기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남북통일 위해서 전 세계의 지성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특히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닌 제3 세계의 힘도 필요하다는 등 우리나라 민족사 입장으로 볼때 독재정권 퇴진 이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이 「교도민주주의」를 하겠다했듯이 국민에게 민주주의 연습을 얼마나 시켰는가가 문제이다.

16년전 보다 민주주의 능력이 자라야 하는데 오히려 신앙과 양심의 자유는 위축되고 출판, 언론, 집회의 자유, 학원의 자유는 억압되고 있다. 노동자 농민은 좀 참아라하면서 외국차관은 해마다 결집 심하여 민족자본은 차관 밖에 안남고 외국기업체는 60%이상 이익을 남기고 있는데 우리나라 차관기업은 불실기업으로 망하고 있다. 이래서 우리도 좀 잘 해볼 필요성이 있어 「민주구국선언문」을 작성했고 이같이 민주주의를 해달라는 것이 동기요 내용이요 목적이란다.

함석헌 선생은 반대 신문에서 손짓, 발짓, 온몸으로 구국을 위했다고 자기소신을 밝혔다. 재판장은 휴정을 선언했고 다시 20분만에 속개를 했다. 재판장은 자기를 향해서 신문을 하고 재판부는 국가를 대표한 입장임을 함석헌 선생에게 주지시키고 변호인에게는 민주구국선언에 대해 종합적 질문을 하라는 질문제안이 있었다.

나석호 변호사의 문동환 목사에 대한 반대 신문이 있었는데 문제 핵심을 간단하게 묻고 목사입장에서 대답하는 광경은 방청객들을 시원스럽게 했다. 갑자기 나왔다는 문동환 목사는 문익환 목사의 동생으로 어릴 때 부터 목사가 될 결심을 했고 소신은 변함이 없다며 대답했다.

공소장에 「반정부, 비방, 왜곡, 기도회를 빙자해서 선동, 분열」 등의 표현은 하느님의 자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하느님이 우리에게 깨우쳐준 것은 결코 선동이 될 수 없다. 더욱이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 하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며, 옳은 것을 그르다고 하는 것이 비방인데 그런 비방은 한번도 해본 사실이 없다. 오직 종교적 차원에서 종교인도, 국민으로, 지성인으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3·1절을 맞이하여 했다.

정부와 국민이 분열될 때는 살 수가 없고, 오히려 살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결코 이간(분열)이 아니고 화해해 주는 입장이다.

억압받는 이를 억압하면 폭동이 되는 법이다. 폭동을 막아서 국민도 정부도 반성해 보는 기회가 됨으로 국가는 정상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시간이 되어 중단하고 다음 주 토요일로 연기했다. <교구 관리국장 신부>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팝니다\*

## 세느의상실

최 춘 자(로사리아)

전주시 중앙동 전주극장 동편입구  
2-6219

☆교형 여러분의 집☆

## 한국(流)은수은돌 부활상회

전주시 전동 3가 26~17번지  
<매곡교 사거리> 전화 ② 2143  
전주 연락주 주원배(실베들)  
① 언제나 찾아 주세요.

\*신자들의 건강 센터\*

## 성심당 한약방

이 상 범(필노리아노)  
옥교 밑 구 북부배차장 옆  
전화 ③ 4544



교리교실 ⑤

요한 복음서

김 윤 섭

개요: 신약성서에 요한이란 이름으로 전해진 문서가 다섯 있다. 이 문서들은 대체로 1세기 말경에 쓰여졌으며 사상면으로나 용어상으로 볼 때 꽤 많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같은 계열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저자: 전승에 의하면 복음서의 저자는 열두사도 중 한분이시며, 에페소의 주교로 계시다가 사도들 중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분이라고 한다. 그런데 복음서의 내용과, 리옹의 주교였던 이레네오의 증언과, 교부들의 증언비판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요한 복음서의 저자에 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복음서 자체에 나오는 예수의 애(愛) 제자에 관한 전승을 살펴볼때 요한사도가 복음서의 골자를 전했지만 그러나 복음서를 직접 집필하지는 않았다. 둘째, 요한 복음서 (1-20장)를 집필한 작가는 헬라계 유대인으로 추정된다. 복음서 작가는 요한 사도가 전한 전승을 직접 수집, 정리함과 동시에 자신의 신학관에 의거하여 복음서를 편찬했다. 이상의 설은 제베데오 아들 요한사도가 복음서의 저자라는 교부들의 증언 (특히 이레네오)과 복음서 내에 있는 구체적 정보의 가치를 존중함과 동시에 복음서의 단어, 문체 및 사상에 헬라리즘 요소가 다분히 내재해 있음을 참작한 것이다.

저작 장소와 연대: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요한 복음서는 1세기 말경 소아시아 지방에서 저술되었다. 복음서 자체를 검토해 보아도 같은 결론에 이른다. 또 이 복음서에서 그노시스(영지주의)를 공박한 흔적이 엿보이며, 그노시스를 공박한 시대는 1세기 말경이다. 이 시대에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해 반란을 일으켰으나(70년) 그 반란이 실패함으로써 팔레스티나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었다. 전승에 의하면 복음사가도 이때 팔레스티나를 떠나 소아시아로 이주하였다고 한다.

내용과 저술동기: 복음서는 두 부분으로 양분된다. 예수께서 세상에서 활동 (1장 19절-12장 50절)과 성부께로 돌아가심 (13장 1절-20장 19절)이 그 내용이다. 복음서를 저술한 동기는 예수의 말씀과 업적을 신학적으로 해설하기 위해서였다. 요한 복음사가 (史家)는 그 가운데서 일 부분만을 선택하여 예수의 정체를 밝힘으로 독자들에게 신앙을 가늠케 하고, 아울러 신앙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자 했다(20장 31절).

신학적 특징: 요한의 신학 사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던 구원이 성취되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요한 복음사가는 역사적 사실을 단순히 서술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역사적 사실이 지닌 신학적 뜻을 밝힌다. 역사상의 예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기록이 아니라, 그가 사도로서 평생동안 전도하면서 얻게된 신앙의 체험에서 우러 나오는 주이신 그리스도를 서술 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요한 복음서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역사상의 예수를 통하여 신앙상의 그리스도를 찾는 신앙 고백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요십이 (53) 크령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입금님찾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⑤ 5 0 1 3  
김 원 준(야교버)

여자보세공 모집

- 1. 자격: 17세 이상
- 2. 모집인원: ○ ○명

※수시 모집함

- 3. 연락처: 전화 ⑧8466  
전주시 전동성당 골목  
김명환 (아오스덤)

김 용 길 양복점

교우 여러분과 결혼 예물은  
특별 염가 제공

정병준(정아우구스티노)  
전주 중앙동 조흥 은행 앞  
전화 ⑤ 3 5 1 9

직원 모집 공고

1. 모집인원 회계원 남자 약간명
2. 응모자격 ①학력 고졸이상  
②년령 22세이상 30세미만
3. 제출서류  
① 자필 이력서 ..... 1통  
②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 1통  
③ 주민 등록 등본 ..... 1통  
④ 소명합판 사진 ..... 2매  
⑤ 병적 증명서 ..... 1통  
⑥ 신형 및 금융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는 제적증명서... 1통  
⑦ 부기·추산 자격증 소지자는 사본 ..... 1통

4. 전형 일시 및 방법  
1976년 7월 16일 오전 10시  
필기시험 (부기·상식) 및 면접
5. 제출 마감 및 제출처  
1976년 7월 15일 오후 5시  
당조합업무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당 조합 업무계에 문의 바람.  
1976년 6월 30일

전주 중앙 신용 협동 조합  
전화 ③ 5 1 9 5

◎교우 여러분께 특별 봉사할  
새롭고 저렴한 연탄보일러 온돌 안내

한국온수산업사

전남북 총판, 기술보급소

군산지점 7211  
정읍지점 2157  
부안지점 736

이리시 인화동2가65-16 (전화 4940)  
한 들 암 (모이세)  
※각 지방 대리점 구함

□개원안내□

★언제나 찾아주세요★  
수석(水石)치과의원

전주시 중앙동 3가 42~1  
〈박 소아과〉 앞

원장 김 현(아오스덤)  
전화 ② 1 6 6 5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사제단 전국 기도회 (5일<월> 오후 6시, 명동 대성당)  
7월 5일은 한국 최초의 사제인 복자 김대건 신부님의 순교기념 일입니다. 한국 사제의 주보이신 복자 안드레아 신부님의 축일에 전국의 사제가 한자리에 모여 기도를 갖습니다. 어지러운 이 시대에 한국의 사제들이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고, 김대건 신부님의 정신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평신도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스도 공동체 목상회 (7일<수> 오후 4시-10일<토>, 가톨릭 센터, 회비 4,000원)
3. 주일 학교 교리 교안 공모 (7월 15일까지 교구청내 교리교사 연합회로 보내세요)  
주제-하느님, 예수, 성서, 기도, 성인공경 (공문 4호 참조 바람)  
※ 새책 월보 6월호 주간, 양지하시기 바람. 연합회의 본당 순방 협조 주시어 감사합니다.
4. 제4지구 교리 교사 연합회 월례회 7월 5일 오후 7시 30분, 교리 교사 연합회 회의실
5. 76년도 교리교사 하기 수련회 각 지구별로... (공문 76년 제5호 3조 참조)
6. 신앙대 강연회 ① 일시-10일 오후 2시~12일 오전까지 (3일간) ② 장소-정음 천주교회  
○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7. 문정현 신부님과 고희환는 형제들을 위한 헌금 누계 815,421원 중앙성당 (13,360원)  
※ 지난해 중앙성당 43,395원은 5월 2일자(180호)와 중복됨으로 누계에 변동이 있음.

(중앙)

전화 ③3651 주 임 신부 이 대 권  
③3874 수석보좌 신부 한 불 섭  
제2 보좌 신부 김 별 환  
사 도 회장 이 상 용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방지거 삼회 월례회: 오늘 오후 2시반
3. 중·고등학생 백일장: 오늘 오후 1시 (충광사)
4. 사도회 임원 보선: 부회장-염익도(사문), '오중원 (아우구스띠노), 재정위원장-김한영(안토니오), 선교위원장-강원모(요한)
5. 미사 시간 변경(평일): 오후 6시→6시 30분으로
6. 첫 영성체 준비 교리: 12일(월) 오후 5시부터  
○ 각 가정의 빠짐없는 등록 바랍니다.
7. 본당 주보 축일(예수성심) 합동미사: 참여세대(161세 대)-922,100원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공 아 영  
사도 회장 조 해 철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 사도회 임원, 구역장, 반장님, 각 신심단체장님의 빠짐없는 참석 바랍니다.
2.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어린이 교리-매주 (토) 3시반, 미사-4시반
3. 신축 기금에 감사 드립니다. 남노송동 최세지리아 (복례)-7,000원.
4. 성인 성경 연구(남성): 7일(수) 오후 8시.  
※ 많은 참석 바랍니다.
5. 어린이 영성체: 10일(토) 오후 2시 30분
6. 교무금을 이달안에 완납합니다.  
※ 교무금은 수녀님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전화 ②2182 주임 신부 박 중 근  
사도 회장 김 용 환

1. 사도회 전체회의: 공식 미사후 ○ 공소회장, 구역

회장, 반장님께서서는 전원 참석 바랍니다.

2. 신용협동조합 임원회의: 공식 미사후  
※ 다음주는 월례회.
3. 어머니 미사시간 변경: 월요일 오전 10시.
4. 어린이 교리와 미사시간: 토요일 <교리-오후 4시, 미사-오후 5시>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 중 길  
사도 회장 조 성 호

1. 반회합: 6일(화) 10반 신 보나씨때 정 수산나반장 (화산동), 7일(수) 11반 송 루시아씨때 허 테레사 반장(태평동 2가), 8일(목) 13반 오 마리아씨때 신 방지거 반장(태평동 2가)
2.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 사도회 임원 및 반장님께서서는 빠짐없는 참석 바랍니다.
3. ★ 하느님께 약속하신 교무금을 완납합니다  
재정 문제로 본당살림에 어려움이 많사오니 속히 완납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 현 택  
사도 회장 박 장 준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 사도회 임원, 반장님께서서는 전원 참석 바랍니다.
2. 반회합: 6일(화) 제1.2반 ※ 반원은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반회합 끝난 반원은 사무실에 다녀 가지기 바랍니다.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 환 철  
보좌 신부 문 규 윤  
사도 회장 양 윤 모

1. 사도회 상임 위원회: 오늘 저녁 미사후
2. 전례분과 위원회: 내일 저녁 미사후
3. 성화회, 유아세례: 오늘 10시 미사후
4. 젊은이의 성가연습: 화, 금요일 저녁 미사후  
○ 뜻 있는 젊은이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각 분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제 1 지구	고 김 수 신 장	사도회 월례회	5,330원	제 3 지구	주 현 동 창 인 화	대의원 회의	49,455원
		사도회 상임 위원회	26,400원			어머니 월례회	53,790원
		안나회, 사목회	17,370원			복자 김 신부님의 밤	7,725원
제 2 지구	대 윤 동 중 합	유아세례	4,140원	제 4 지구	중 송 덕 복 서 학 동	사도회 월례회	88,420원
		사도회 성심회	52,680원			사도회 월례회, 성모회	34,540원
		성당신축 자문 위원회	26,485원			사도회 전체 회의	13,990원
		사도회, 요셉회, 부녀회, 일우회	16,005원			사도회 월례회	20,415원
		사도회 상임 위원회	14,000원				78,120원
제 3 지구	고 금 여 삼	7일 예수성심 부녀회 정기총회	3,605원	제 5·6 지구	무 장 진 남 순 임	주일을 잘 지킵시다	7,205원
		사도회 월례회	26,500원			사도회 청년회	5,420원
		자모회 월례회	14,365원			정성어린 봉헌금을 바칩시다	8,985원
						메레사 월례회	15,470원
						성수 공소 회장 선출	4,120원